

(KIC중국, 2021.4.20)

□ 기후변화 대응 결심 보여주고, 中-유럽 협력 발전 추진—여러 나라 인사, 中·佛·獨 화상 정상회의 열띤 토론 (2)

Ong Tee Keat 말레이시아 신아시아주전략연구센터 회장은 “이번 화상 정상회의는 국제 다자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에 좋은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폭을 기록하고, 전 세계 역사상 최단시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은 뒤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 대국적 본보기를 세웠다” 고 덧붙였다.

오만 기상학 전문가는 “중국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한 노력은 적극적이고 사심이 없는 것으로 많은 선진국들도 중국을 본받아 각자의 배출 감축 목표를 선언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으므로 전 세계는 손 잡고 방역하고 코로나19 백신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 “일부 국가가 백신을 대규모 사재기하는 것은 전 세계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피해를 줄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이 ‘백신 민족주의’ 에 반대하면서 개발도상국이 백신을 공급받아 방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 세계 방역을 위해 취한 적극적인 행동” 이라고 평가했다.

프랑스 싱크탱크 실러(Schiller) 연구소 Christine Bierre 연구원은 “유럽은 유럽-중국 관계 발전의 큰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에 직면해 유럽과 중국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야 하며, 이는 전 세계 경제 회복에도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많은 분야에서 유럽-중국 간 새로운 협력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 면서 양측은 모두 디지털 기술 등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프랑스 중국문제 전문가는 “유럽-중국은 생태보호와 녹색발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기후변화 대응을 유럽-중국 협력의 중요한 기둥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Berthold Kuhn 베를린 자유대학교 선임 연구원은 “기후변화 문제는 글로벌적 도전으로 각국이 긴급조치를 취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화상 정상회의의 중요한 의미는 유럽-중국이 기후변화 대응 문제에 대해 협력을 지속하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 이라고 덧붙였다.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은 “지구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수호하기 위해 국제간 다자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화상 정상회의는 현실적인 의미를 지닌다” 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폴란드 사회민주당 기관지 편집장은 “중국과 EU는 코로나19 기간 협력을 펼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동시에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안정을 함께 보장했다” 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여러 국가의 노력으로 전 세계에서 백신 투여가 질서있게 추진되고 경제와 사회 생활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유럽-중국 협력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EU 투자협정 타결과 중국-EU 지리적 표시 협정 발효는 양측의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했다” 면서 “중국이 수준 높은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공평·공정하고 차별없는 사업환경 조성에 힘쓸 것” 이라고 강조한 것에 대해 유럽과 세계 각국은 환영하며, 이는 단결협력을 촉진하고 호혜상생을 실현하는 조치” 라고 덧붙였다.(新华社, 2021.4.19.)